

‘100년 숲 심다’...평창군시설관리공단, 출범 4주년 식목일 행사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5.04.07 11:42



공단 출범 4주년 식목 행사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공단 출범 4주년을 맞아 식목 행사를 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평창국민여가캠핑장에서 ‘4년의 열매, 100년의 숲을 심다’라는 주제로 식목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25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블루엔젤 80그루를 캠핑장 내 지정 구역에 심었다.

이번에 심은 나무를 통해 연간 0.96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4kg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단은 내다봤다.



공단 출범 4주년 식목 행사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2021년 4월 1일 출범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가족 친화인증,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한국거버넌스 대상 등을 수상하며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왔다.

최순철 이사장은 “식목 행사를 통해 환경보전과 조직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탄소 중립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단 출범 4주년 식목 행사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